

중국 종교 문화의 유형

모종감*

譯 박성숙**

중국과 동아시아 종교문화는 세계 종교사 연구 관련 국제 학술 무대에서 오랫동안 냉대와 소외를 겪었다. 서양 학자들이 저술한 세계 종교저작들은 중국 종교를 중시하지 않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치거나, 뒤죽박죽으로 기록되어 개괄이나 종결을 하기 어려울 정도다. 유럽 문화중심론의 지배 하에서 서양학자들에게 익숙한 기독교의 일신교적 이론 틀은 중국과 동아시아 종교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과 동아시아의 부흥에 발맞추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줄리아 칭과 한스 쾅(Ching, J. & Kueng, H)이 종교간 대화를 바탕으로 쓴 《중국종교와 기독교》¹⁾가 그 예다. 이 저서는 세계의 주요 종교를 삼대(三大) 하계(河溪)를 중심으로 분류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브라함 계열의 삼대 종교, 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이다. 이들 종교는 셈 족에 기원을 두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 두 번째는 인도 종교로서, 신비주의를 그 특징으로 한다. 마지막 것은 중국에서 기인한 원동 종교이며, 그 중심 이미지는 성현(聖賢)이고 철인 종교다. 이 책의 삼 대 하류유역을 중심으로 한 종교 분류에 대해서는 아직 의논할 여지가 있지만 중국의 종교를 삼대하계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식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미국학자 폴 니체는 《하나의 지구 다양한 종교》²⁾에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종교 다원적 국가로서, “중국인은 모두 종교적인 혼혈아”이며, 반면, 유럽인과 미국인은 “유일한 종교 유형 중에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양과 서양이 종교 신앙에 있어서 “다원(多元)”과 “일원(一元)”의 차이를

* 중앙민족대학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1) 秦家懿, 孔汉思: 《中国宗教与基督教》, 北京, 三联书店, 1990年.

2) [美] 保罗·尼特: 《一个地球 多种宗教》, 王志成译,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3年. 费孝通主编: 《中华民族多元一体格局》(修订本), p.117, 北京, 中央民族大学出版社, 1999年.

지닌다고 보았다.

중화 민족의 민족 구성은 다원일체(多元一體)적이며, 그 종교문화는 다원 융합적이다. 발생에서 발전에 이르기까지 그 문화적 기본 요인은 다원성, 화합성, 주체성, 연속성, 개방성을 포함한다.

중국 종교문화의 다원 융합 유형은 크게 4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중국 종교는 기원이 다양하면서도 모두 하나의 중심 체계로 끊임없이 융합되어, 중화민족의 문화적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민족 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낸다.

진연개(晉連開) 교수는 중화민족의 기원, 발전, 그 구조와 문화적 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괄한 바 있다. “기원이 다양하며, 각 지역마다 발전의 정도가 고르지 않고, 모임과 흩어짐을 반복한다.”³⁾ 이것은 매우 치밀하고 예리한 분석이다. 중국 상고시절, 많은 원시 민족들이 모여 화하(華夏: 중국의 옛 명칭-역주)족이 되었고, 화하족을 핵심으로 주변의 야만족이 연합되어, 한족을 다수로 하는 복합형 민족, 즉 중화민족의 형성과 발전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한족과 중화민족의 “혼혈적” 특성은 종교 신앙의 “혼혈 유형”을 만들어 냈다.

다양한 신앙 문화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집합과 정합의 과정을 거쳤다.

(1) 초기 다양한 토렘신앙이 모여 종합적 용봉(龍鳳) 토렘승매를 형성했다.

원시 씨족은 다양한 토렘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융합 과정에서 용과 봉황이라는 두 종합적 토렘이 출현하여 토렘의 으뜸이 되었다. 그것은 많은 동물이 대표하는 종족의 품성을 한데 모아, 점차 중화민족이 승인하는 문화 상징 부호가 되었고, 이것은 조상들의 위대한 창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용의 건장하고 멋진 여러 자태들과 날아오르는 변화들은 중화민족의 생명력과 창조력, 민족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구름과 비를 일으켜 농경에 유익을 주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가장 환영을 받았다. 봉황은 각종 조류의 집목으로 생긴 것으로 아름답고 고결한 행운의 상징으로, 많은 면에서 여성을 대표한다. 또한 용과 봉황의 형상은 바로 중국의 음양의 이치에 대한 예술적 상징

3) 费孝通主编：《中华民族多元一体格局》(修订本)，p.117，北京，中央民族大学出版社，1999年。

이기도 하다.

(2) 다양한 조상숭배가 “삼황오제(三皇五帝)” 라는 신화전설로 정합되어, 중화민족 형성을 위한 혈통적이고 인문적 근원을 확립하고, 중화민족이 승인하는 초석이 되었다.

“삼황”과 “오제” 설은 다양하다. 가장 우세한 “삼황”설은 수인씨, 복희씨, 신농씨가 각각 인공적으로 불을 얻던 상고 시기, 수렵시대, 농경 시대에 대한 역사적 추구를 반영하며, 중화 문명발전의 행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오제” 설은 사마천의 《史記 五帝記 (사기 오제기)》의 영향이 가장 큰 데, 여기서는 오제를 황제(皇帝), 전욱(顓頊), 제곡(帝嚳), 당요(唐堯), 우순(虞舜)으로 본다. 그 중 황제는 화하족의 정식 창건자이며 중화 초기 문명의 창시자로 여겨진다. 황제는 혈통의 근원이며, 문화의 근본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를 인간 문명의 시조라 부른다. 요순은 고대 현명 군왕으로서 공자, 맹자는 이에 대해 많이 언급하였다. “오제”설의 창건은 중화민족 혈통의 문화적 기호 뿐 아니라, 중화민족 도통(道統)의 문화 정신인 “인화(仁和)”와 “민본(民本)”을 확립하였는데, 이런 정신은 이후 중화 민족의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 정치 문명을 주도하게 되었다.

(3) 하(夏), 상(商), 주(周) 삼대(三代)의 민족 국가 발전 중에 “경천법조(敬天法祖: 하늘을 경외하고 조상을 본받음)”를 기초로 한 차별성 있는 종교 문화가 형성되었다.

삼대 모두 천명(혹은 상제), 귀신(주로 조상신)을 믿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삼대의 조상 계통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신도(神道)와 점복(占卜)에 대한 태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모두 하늘을 경외하고 조상을 존경한다. 이들 종교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삼대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민족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관계가 밀접하여 모두 복합적 민족, 즉 화하족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이미 중화민족의 이중 구조가 출현했던 것이다.

(4) 음양오행 사상이 천제 숭배를 피라미드 구조로 정합함으로써, 다원 일체적 민족적 구조에 부응하고 이 구조를 공고히 했다.

춘추 전국시기, 예악(禮樂)이 붕괴되었다. 추연(鄒衍)을 대표로 하는 음양오행 학설이 오방, 오제 등과 결합되어 공간적 신앙구조를 세웠다. 중토(中土)는 황제(皇帝), 동방(東方)은 태호(太皞), 서방(西方)은 소호(小皞), 북방(北方)은

전욱(顓頊), 남방(南方)은 염제(炎帝)로 대응되었다. 만약 《사기》의 “오제”가 역사적 다섯 황제라면, 음양오행 체계의 “오제”는 다섯 지역의 다섯 황제를 일컫고, 이들은 천하의 다섯 지역을 관리한다. 한무제는 통일 대제국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당을 세워 태일신(太一神) 즉 가장 높은 신을 제사하였으나, 오제는 천제를 보좌하는 위치에 두었다. 후에 태일신은 호천상제(昊天上帝) 혹은 황천상제(皇天上帝)라 개명되어 오제가 이를 보좌하고, 그 아래에는 산천 해와 달, 바람, 비, 번개, 귀신, 조상을 관할하는 신들을 두어 방대한 신계(神界) 체계를 조직했다. 이것은 하나의 핵심을 중심으로 한 다계층 다항구조적 다신 세계로서, 이는 중화민족이 다민족, 다지역, 다문화적 통일국가라는 역사전통과 일치한다.

(5) 한나라와 위진 남북 이후, 경천법조의 기초 위에서 유교가 주도 사상이 되고 불교와 도교가 보편하는 삼교(三教)의 정립과 상호 작용 국면이 형성되어, 전통 사회 신앙 문화의 핵심이 되었다. 이는 차이와 모순을 용납하면서도 자신의 독특함을 잃지 않는 다원적 핵심을 반영한다.

공자가 창립한 유학은 삼대 예악 문화의 인본과 이성의 전통을 계승 발전한 것으로서, 인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화평을 귀히 여기며(仁者爱人 和为贵), 길은 달라도 같은 목적지에 이르름(同归殊途)을 강조함으로써 사상 문화를 독점하지 않았다. 불교는 자비와 선행, 제악(除惡)의 뜻을 품으며, 도가와 도교는 자비와 검소, 부쟁(不爭)을 강조하고,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한다. 삼가(三家) 모두 박애, 화평을 종지로 하고 있다. 동시에 유가는 예의를 중시하고 불가는 선수(禪修)를 중시하며 도가는 양생(養生)을 중시하는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고 병존하되 서로 상충되지 않았다. 따라서 삼교는 막강한 호응력을 가지고 각 민족 각 지역에 투입하여 다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는 정신적 유대가 되었고, 이질적이고도 상이한 민족 민간 풍속과 문화를 포용하여 각 문화가 자신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하여, 중화민족 내부에 풍부하고 다양성 있는 문화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둘째, 중화 민족의 신앙 문화는 긴밀한 선후 연계와 상호 원인 작용을 통해 계승 발전되었다. 단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단계 간 큰 단절이 없이 근원적 신앙 혈통과 상통하면서 발전했다.

중국의 민족 종교 혹은 사회 종교는 초기 천신 숭배, 조상 숭배, 농업 제사에서 발전했다. 이는 중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초 신앙이 되었다.

중국인은 “만물은 하늘로부터 말미암고 사람은 조상에게 말미암는다 (万物本乎天, 人本乎祖)”⁴⁾는 근원적 의식을 지닌다. 만물은 천지가 진화한 것이고 인류는 조상이 번영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근본과 시작을 알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천신 숭배와 조상 숭배가 생겨났다. 그리고 농업 사회에서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토지 경작과 오곡이 생활의 주요 원천이었기 때문에, 사직숭배가 삼대에 매우 발달하였다. 한나라 이후, 국가 민족 종교의 제도적인 중건은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온 천신, 조상, 사직 삼대 숭배를 기초로 하여, 이를 보충하고 개선하면서 완성되었다. 교사종묘제도는 그 성과물로서 시기에 따라 증감이 있었으나, 기본적 형태는 변하지 않고 청 말까지 이어졌다. “경천법조”는 중국인의 사회종교인데, 그것은 기초 신앙이면서 다른 신앙을 포용하는 성격을 지녀, 중화민족 다원 일체적 구조의 정신적 유대가 되었다.

유가의 인예지학(仁禮之學)은 초기 예악 문화에서 진화하고 승화한 것으로 그 후 이천여 년 중화 문화의 사상적 주류가 되었다.

삼대(三代) 문화의 최고 성과는 《오경》을 대표로 한 예악 문화 혹은 간략히 말해 예문화이다. 공자의 공헌은 바로 그것을 집대성하고 인(仁)을 핵심이념으로 하여 예문화를 방대하고 심오한 규모를 갖춘 논리적 인학(人學)으로 승격시킨 데에 있다. 또한 “충서지도(忠恕之道)”, “화이부동(和而不同)”, “천하일가(天下一家)”, “천인일체(天人一體)” 등의 사상을 이용하여 가족윤리를 사회윤리, 세계윤리와 생태윤리로 발전시켰다. 유학은 전통적 천명론을 보류하고 “신도설교(神道設教: 귀신을 이용해 백성을 교화함)”를 주장함으로써, 조상의 덕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이렇게 하여, 유학과 존천경조(尊天敬祖)의 예교(禮敎)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맺어 중국인의 공통의 정신 지주가 되었다.

초기 원시 신앙과 신화 중에서 노장도가(老庄道家)가 탄생하였고 그 후 도가에서 도교가 파생되었다. 도교는 고대 민간 신앙을 흡수하여 제련과 창신을 가함으로써, 근원적 유구성, 민간적 대중성 및 숭배의 다신성을 갖추고, 중국 민중의 신앙 특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노장의 “도”는 선조들의 여성생식숭배와 천지개벽신화의 이론적 결정체이

4) 《礼记·郊特牲》, 见《十三经注疏》,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8年.

며, 노장의 양생지도(養生之道)와 불사의 추구는 선조들의 신선숭배와 무교의 전승이자 승격의 산물이다. 노장 도가철학의 “귀유수자(貴柔守雌: 부드러움을 귀히 여기고 여성스러움을 지키는 것), “이무어유(以無馭有: 무로써 유를 다스리는 것)”는 여성의 지혜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남성의 지혜를 표현하는 유가 철학과 상호 보완을 이루어 중화 민족의 성격, 즉 진취적이면서도 너그럽고 편안한, 강함과 유함이 공존하는 성격을 빚어냈다. 한마에 흥기한 도교는 도가를 종교화하고 민간화하였는데, 이것은 고대 전통에 대한 모종의 회귀이다. 후기 도교는 도가로 회귀하면서도 민간 신앙과의 결속 상대를 유지하였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민중적 사유 방식과 생활 방식, 도교 문화 가운데서 모두 노장 사상과 원시적 민간 신앙 문화 전통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중화 전통 종교는 신과 인간의 조화로운 일체를 강조해왔다. 신도 중의 인도적 속성을 중시하고 신성을 인성과 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전통은 그 기원이 오래되었으며 뿌리가 깊다. 중국인의 마음에 신은 반드시 선행해야 하며 반드시 인간을 사랑하되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 또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비로서 신을 사랑할 수 있고, 신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믿었다. 신의 의지는 백성의 의지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므로 《尚書·泰誓(상서, 태서)》에 이르기를 “백성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늘이 반드시 따른다”고 했고 《尚書·蔡仲之命(상서, 채중지명)》에서는 “황천은 친함이 없으니 오직 덕으로써 돕는다”고 하였으며, 《左傳(좌전)》에는 “백성이 신의 주인이다”(檀公 6년)라고 기록되어 있다. 황천은 한 군왕을 선택하여 천하를 다스리게 하지만 그가 덕이 있는지를 관찰하여 이에 따라 군왕을 바꾸기도 한다. 즉, 군왕이 “능히 큰 덕을 밝히고(克明俊德)” “백성을 평화롭게 하며(平章百姓)”, “만방을 도와 화목하게(协和万邦)”⁵⁾ 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덕치의 기본 요구사항이다. 만약 군왕이 폭정을 행하면 천명은 다른 유덕한 자에게 옮겨진다. 이렇게 하여 경천 신앙은 백성의 고통에 대한 관심으로 향하게 되었고, 신의 이름을 빌미로 횡포를 부리거나 이교도를 박해하는 현상은 극히 드물었다.

5) 《尚書·堯典》, 見《十三經注疏》,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8年.

조상숭배는 조상을 달래어 복을 받고 화를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기념의의와 은혜에 보답하는 효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인들은 조상이 가족의 근원으로서 자손에게 은혜를 미치고, 특히 영웅적 조상은 백성에게 더 큰 공덕을 끼쳤으므로, 그들을 잊지 말고 제사를 통해서 기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조상에 대한 제사는 받아내려고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답의 행위였다. 조상이 실제로 신통한 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천지, 산천, 사직, 조상 모두 민중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큰 은혜를 끼쳤으므로 사람들은 그것들을 경애하고 기념하고 신과 같이 받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다.

공자와 유가는 바로 삼대 이래로 이어져 온 신도와 인도의 긴밀성, 즉 신이 인간을 빌어 행하는 전통을 계승 발전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인도적 입장에서 신도를 해석하여, 신도의 신비성과 초인간성을 줄이고 신도의 인문적 이성과 인간의 기능을 부각시켰다. 신도를 인도 중에 귀속시킴으로써 인간을 중시하고 귀신을 경히 여기면서도 귀신을 이용해 백성을 교화하는 중용의 종교관을 형성한 것이다. 공자와 그 후학들이 제기한 ‘경귀신이원지(敬鬼神而遠之: 귀신을 두려워하되 그것을 멀리함)’, “제신여신재(祭神如神在: 신이 보고계신 것 같이 신께 정중히 제사함)”, “신종추원, 민덕귀후의(慎終追遠, 民德歸厚矣: 근원을 삼가 두려워하고 따르면, 백성의 덕이 두터워진다)”, “신도설교(神道設教: 귀신을 이용해 백성을 가르침)”, “제위교본(祭為教本: 제사를 가르침의 본으로 여김)”, “사사여사생(事死如事生: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섬김)” 등의 사상은 모두 신도를 교화의 도리로 간주한 것으로서, 도덕적 기능을 특별히 강조하였으나 신도 자체의 초월성과 절대성은 그다지 개의치 않았다. 유가가 중국 문화에서 장기적으로 주류의 지위를 차지하였고, 또 인간을 근본으로 하면서도 신도를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와 도교는 유가의 큰 포용력 속에서 자신의 출세교의를 견지하는 동시에 더 많은 입세 정신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양교는 현실의 삶과 위선거악(為善去惡: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했다. 심지어 선을 닦고 덕을 베푸는 행위를 교도들이 수행해야 할 첫 번째 의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중국 종교는 비교적 일찍 신학 종교의 단계를 넘어설 수 있었고, 도덕 종교라는 비교적 높은 차원으로 진입했다. 유, 불, 도 삼교의 공통된 영향으로 중국인은 인도와 신도, 철학과 종교,

이성과 감정, 출세와 입세 사이에 균형을 찾고 유지할 수 있었다. 삼교 모두 중도를 가치있게 여기고 종교 극단주의에 쉽게 빠지지 않았다. 삼교 혹은 양교를 동시에 신봉하는 사람을 포함한 중국 사람 대부분이 삼교의 “혼혈아”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엄격한 입교 의식이 없고, 심지어 유신론과 무신론 사이의 한계도 모호해 그 포용성이 컸다.

넷째, 중화전통신앙은 그 문화의 종합적 요인으로 인해, 외래종교를 쉽게 받아들이는 본연적 개방성을 지녔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대종교들이 진출해 평화롭게 발전하는 이상적 공간이 되었다.

중화민족의 신앙근간은 다신다교적이기 때문에, 외래 종교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였다. 한족의 민족관을 나타내는 소위 “이하지변(夷夏之辯: 오랑캐와 중국의 논쟁)”은 혈연이 아닌 문화영역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그 경계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단계를 거쳤다. 제 일 단계는 상고에서 삼대 시기로, 여러 오랑캐가 중국으로 집합하는 시기다. 제 이 단계는 춘추에서 진한 시대로, 이하지변은 중화민족 내부 문화의 우열 논쟁을 뜻한다. 제 삼 단계는 삼국 위진에서 명청(明清) 시기까지로 이하지변은 중국과 인도 문화간의 토론으로 확장되었고, 제 사 단계는 아편 전쟁에서 당대까지로, 이하지변은 중국과 서양 문화간의 토론으로 전환되었다.

인도불교는 초기에 “이적지교(夷狄之教)”라고 여겨졌고, 후에 본토화를 거쳐 중화의 종교가 되었다. 이슬람교는 초기에 번객지교(蕃客之教)라고 여겨지다가 나중에 유학과의 융합으로 중국의 특색을 갖추게 되었다. 기독교는 초기 양교(洋教)라고 불려지다가 지금은 이미 중국인의 중요한 신앙이 되었다. 지금 중국의 五大 합법적 종교 중에 네 개가 외국에서 유입되었고 도교만 본토의 종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화합 공존하여 일찍부터 종교간의 분쟁으로 사회에 혼란을 끼친 적이 없었다. 이로써 신앙 면에서 중국인의 개방성과 관용성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동아시아 유학 문화권과 불교 문화권 안에 있는 각 국의 종교 역시 다원적이고 개방적이다. 종교 종류의 다양성으로 살펴볼 때, 중국에는 세계 삼대 종교인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삼교의 주요 교파가 있으며, 도교와 같은 민족종교, 인간 종교 및 각종 종교 풍속들이 있고, 북방의 사만교, 남방의 무교, 원시 숭배의 유습도 남아있

다. 이는 인류 각종 신앙 유형의 축소판이라 할 만하다. 지금 인류가 대면한 문명의 충돌은 종교간의 대화와 각종 사상간의 교류 발전을 필요로 한다. 교류를 통해 이해에 이르고, 이해를 통해 협력을 증진해야 세계 화평과 발전에 비로소 희망이 있다. 중국과 동아시아 신앙 문화의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유형은 세계 문명간의 대화를 위한 위대한 지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중국 종교문화, 다원일체, 용봉 토템, 삼황오제, 경천법조, 음양오행, 다신다교